

대학 사회의 인간관계

김 병 택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학 연 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 집단은 가족이나 이웃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직장이나 종교처럼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선택된 것도 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든지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항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살게 마련이므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인격적 결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집단의 경우에도 사정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다. 하기가 억지로 따져서 말한다면 다른 점이 있기는 있

다. 가령, 대학 집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특히 교수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집단과는 다른 점'이 함의하고 있는 바와 동떨어진 것임은 물론이다. 교수들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대학 집단에서의 학연 중심의 인간관계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것이 그냥 두고 보아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잘 알려진 그대로이다. 최근에 읽은 어느 일간지의 기사 내용은 그 점을 확인해 준다.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지방의 모 대학에서는 “교수 채용의 폐쇄성을 지양, 우수하고 유능한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 임용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기사의 내용에는 “교수 채용 학과 소속 교수의 3분의 2 이상이 학위를 취득한 국내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응모자는 임용이 제한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져 있다. 대학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조치를 결정한 이유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 같은 학과에 교수로 많이 채용될 경우, 파벌과 학맥을 만드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연 중심의 인간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부정적 측면으로 진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지연 중심의 인간관계는 학연 중심의 인간관계보다 그 뿌리가 훨씬 더 견고한 것 같다. 그 점은 정치인들의 인맥 형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대체로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구조가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고향 의식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정론적인 현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지연 중심의 인간관계가 집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사용 되는 게 아니라 공적인 행정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데에 있다. “고향이 같으니 까……”, 아니면 “고향이 다르니까……”라는 지연적 생각이 대학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는 교수들의 판단에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공 중심의 인간관계는 외형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경쟁적·적대적인 경우가 많다. 동료교수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논문을 발표하거나 획기적인 저서를 상재했을 때 외형적으로는 찬사와 축하를 보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논문이나 저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논문이나 저서는 가치를 평가 받기는커녕 무성한 언어의 폭력에 짓밟혀서 더 이상 원상태로 되돌아 올 수 없을 정도의 누더기꼴이 되고 만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이 경우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된다. 동료교수가 만일 어떤 실수라도 하게 될 때, 그것은 턱없이 과장된 소문으로 퍼져 나가고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 중심의 인간관계가 반드시 그렇게 살벌(?)한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의 학문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학문적 동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종교나 취미 중심의 인간관계에는 얼핏 볼 때, 갈등이 빚어질 어떠한 이유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 종교나 취미는 어떤 의미에서 목적성보다는 순수성을 훨씬 더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나 취미 중심의 인간관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적극적인 사람에 의해 주도되기 마련인데, 그 경우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 갈등이 종교나 취미를 포기하는 정도로까지 진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화있는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종교 활동이나 취미 활동에서도 다른 활동에서처럼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적극성이 없는 종교 활동이나 취미 활동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찾아낼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은 그러한 점을 거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종교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생활의 조그마한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종교 활동이나 취미 활동에 어떤 두 사람의 생각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바로 조화있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문제는 그들이 동일한 대학 집단의 구성원들이라는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인간관계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것이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라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 인간관계가 수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수가 지식 전달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려 하고, 학생은 그 지식을 전달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비판하고 수정하려 하는 데 있다. 열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는 학생들의 그러한 태도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닫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는 학생들의 그러한 태도를 꽤심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의 대부분은 어느 조사 보고서의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대부분의 교수가 좀더 인간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대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학생은 교수가 그들의 교우관계, 취업관계, 애정관계 등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인간관계는 학생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바라는 바가 교수에 의해 수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형태는 신뢰관계, 불신관계 중의 어느 하나이다.

교수와 학생의 불신관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아마 무관심일 것이다. 이 때의 무관심은 주로 교수의 학생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한다. 교수와 학생의 사이가 아니라면 그것은 불신관계를 형성하는 데 작용할 만한 요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유독 교수와 학생 사이의 불신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작용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와 학생의 신뢰관계는 전적으로 교수의 학생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오랜 관습적 사고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의, 학생에 대한 무관심은 진지함도 없고 열정도 없는 요령부득의 강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강의가 교수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지 몰라도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교수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일이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와 학생의 불신관계는 학문적인 불신관계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돈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돈을 통해서 소유할 수 없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한 것처럼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고 여러 가지의 인격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고민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일단 직장에 소속되면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야 한다. 그것은 대학 집단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적 삶의 원리이다.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나름대로의 필요와 목

적 때문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간다.

교수들은 더 많은 업적을 쌓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해야 하고 학생들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교수나 학생이 대학 집단의 틀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온갖 갈등, 대립, 충돌은 당연히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귀착된다. 그래서 또한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그것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을 명심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김병택/제주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현대문학』지의 추천으로 문학평론가로 등단한 후 제주문인협회장을 지내고 현재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바벨탑의 언어』, 『한국근대시론 연구』, 『한국현대시인론』 등이 있고, "'날개'의 이미지리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